



통합 2018년 5호

소중한 꿈을 키워 나가는 희망꿈터 !!

남자 청소년 쉼터

대화하고 싶을때..
힘이 들때..손 잡아줄께~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여성가족부 · 복권위원회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성남시



안나의 집
ANNAHOUSE

남자 청소년 쉼터



성남시단기·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03 인사말 (단기청소년쉼터 소장 박성진)

04 법인연혁 및 시설현황

쉼터소개 -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05 쉼터소개 (연혁, 직원현황, 운영현황)

사진 갤러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역신문“비전성남”기재)

희망이들의 이야기

이등병의 편지

실습선생님 이야기(김대현)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홍장원, 박경희)

쉼터후원안내

쉼터소개 -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27 쉼터소개

직원현황 및 운영현황

아·자·트 운영현황

사진갤러리

너와 나의 이야기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외부공모사업(울.사.단!) 참여 청소년들의 이야기

쉼터후원현황

Dream Up!

54 프로그램 소개 및 활동사진



인사말

대화하고 싶을 때, 힘이 들 때, 손잡아 줄게 !!!

어느덧 2018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고, 추운 겨울이 찾아 왔습니다. 사계절 중에 저희 단기쉼터의 슬로건에 가장 많이 부합하는 계절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힘든 계절이기도 합니다.

본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는 올 한해 청소년들의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신규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에 이전을 시작하여 정신없이 올 한해 마지막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전준비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소년들의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목표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한해가 지나 2019년이 되면 청소년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만난지 10년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 과연 그 청소년들을 위해 귀 기울여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따뜻한 손길을 주었는지 되새겨 보는 올 한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춥기도 하지만 눈이 내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많은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하루하루를 지내기 힘들어 아르바이트에 전전긍긍하며, 추운 겨울을 힘겹게 지내는 청소년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올 겨울 역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힘이 될 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는 내년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장과 자립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화사업으로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 역시 거리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 외에 학교아웃리치를 통해 재학생들에게도 예방프로그램 및 교육을 하기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학교를 찾아가 청소년들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정 밖과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 외에도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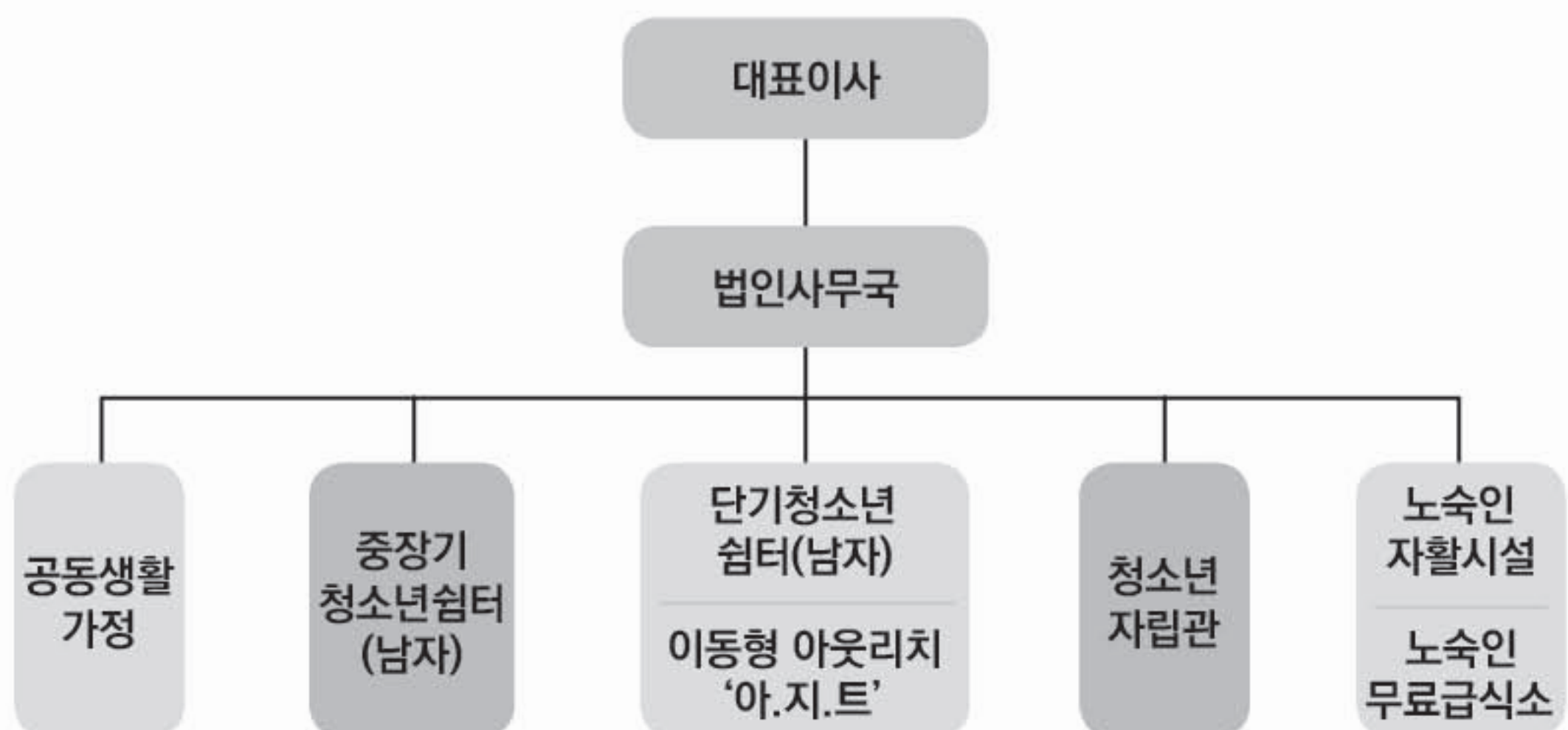
올 한해도 청소년쉼터와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애써주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후원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 기관도 청소년들이 항상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 아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2018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청소년쉼터 소장 박 성 진

법인 연혁

1998	07	노숙인 급식소 설립	2006	04	청소년쉼터 설립
	11	하대원102번지 이전		07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위탁
	12	노숙청소년자활 프로그램실시		11	청소년쉼터 개보수확장
1999	02	운영위원회 발족	2008	11	노숙인센터 신축
	03	노숙인자활프로그램실시	2009	03	노숙인 인문학 수업 개강
2002	01	노숙인 쉼터 설립	2011	10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위탁
	07	개원4주년 기념행사	2012	04	노숙인 자활작업장개설 운영
2003	01	수원교구 인준	2013	07	노숙인 자활시설 위탁
	03	노숙인 거리상담팀 조직	2015	07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청소년 아웃리치사업 'A지T(아지트)' 실시
2004	07	노숙청소년 자활프로그램 실시		05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청소년 이동급식소 "밥묵차" 사업 실시
	11	아동그룹홈 건물매입	2016	08	안나의 집 신축 기공식
2005	03	아동그룹홈 건축물 개보수	2017	06	성남시단기·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시설이전
	08	개원6주년기념축제		09	안나의 집 신축 축복(완공)식
	11	청소년 거리축제 실시	2018		
		청소년봉사단어울림발대식 아동그룹홈 시설인가 취득			
2006	01	천사의집과 기관 협력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2019		
	03	성매매근절 캠페인			

조직 체계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남자)

20
18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 중장기 쉼터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어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안정된 환경 안에서 학업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개별, 집단상담, 부족한 학습지원, 문화활동, 진로지도,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성이 함양된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설립 및 운영주체

설립 2011년 10월 01일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위탁사업 실시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 연혁

2011 1 0 성남시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위탁사업 실시

2012 0 2 쉼터 개소식

2012 1 1 공부방 개보수, 확장

2012 1 1 운영위원회 발족

2013 0 4 사회적기업 자리(주) 교육 및 현장실습 협약 체결

2013 1 0 성남시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재 위탁(3년)

2014 0 1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 협약 체결

2015 0 1 길벗한의의원, 남서울치과 진료지원 협약 체결

0 3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1 2 쉼터 내부개보수

2016 0 6 기관명 변경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0 8 소아청소년상담센터 공감 상담지원 협약 체결

연세푸른 정신과의원 진료지원 협약 체결

0 9 2016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중간평가(2013~2015)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재 위탁(3년)

1 2 분당우리교회 차량지원사업 선정

2017 0 6 우리은행 판교지점 후원협약 체결

1 0 성남시 상담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0 9 사단법인 자원봉사 "애원" 벽화공모사업 선정

2018 0 3 성남이로운재단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공모사업 선정

0 4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협약 체결

0 7 용문사 템플스테이 협약 체결

연세와이엘 의원 협약 체결

• 직원현황

이름	직위	업무
박주형	소장	사업총괄, 대외협력, 후원자 관리
정재용	주임	운영실적, 시설관리, 수련활동, 운영위원회
장가람	주임 / 청소년상담사	자원봉사자 관리, 상담,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현미숙	행정원	행정 및 후원관리
손주일	보호·상담원	야간 생활지도, 문화활동, 교류활동
오정빈	보호·상담원	야간 생활지도, 인권교육, 직업체험
안순희	취사원	주간식단 및 식사관리

• 2018년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 사례수

(단위: 명)

구분	입소생	사용자	합계
진행 사례수(실인원)	12	62	74
신규등록 사례수	2	62	64
연인원 사례수	3,133	88	3,221

▼ 입소연령

(단위: 명)

구분	남자				합계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입소자	0	0	10	2	12
이용자	0	0	2	60	62
합계	0	0	12	60	72

▼ 보호기간별 입소청소년 현황

(단위: 명)

구분	보호기간					소계
	15일미만	16~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입소자	62	0	1	1	10	74
이용자	62	0	0	0	0	62

▼ 사후관리

(단위: 명)

구분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서신상담	총계
합계	44	44	8	0	5	101

▼ 퇴소현황

(단위: 명)

구분	퇴소사유									합계
	가정 및 학교복귀	아동시설 의뢰	기타시설 의뢰	보호기간 만료	대안학교 입학	취업 알선	합의 퇴소	자립육구에 의한 합의퇴소	사회복귀	
합계	0	0	1	0	0	0	0	2	0	3

▼ 상담지원현황

구분	처리유형				개입방법						합계
	단독	협의	위탁	미분류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서신상담	지원서비스	
본인(청소년)	3,607	0	0	0	1,024	101	39	0	6	2,437	3,607
학부모	36	0	0	0	4	32	0	0	0	0	36
부모외 가족	9	0	0	0	2	7	0	0	0	0	9
지도자	147	0	0	0	50	90	7	0	0	0	147
일반인	64	0	0	0	15	47	2	0	0	0	64
합계	3,863	0	0	0	1,095	277	48	0	6	2,437	3,863

• 심터 내, 외부 모습



심터전경



심터전경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거실 및 컴퓨터실



식당



세탁실 및 화장실

• 학업 및 자립지원



학습지도(과외)



학원연계('박살' 연기학원)



알쓸신잡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알쓸신잡(MBTI)



알쓸신잡(급여관리)



자립지원(장보기)



자립지원(요리만들기)



구직활동지원



취업처방문

• 문화·교류활동



문화활동(음악회)



문화활동(연극관람)



문화활동(세계음식문화체험/국제봉사단)



문화활동(롯데월드)



교류활동(여수 기차여행/코레일지원)



교류활동(탁구)



교류활동(만화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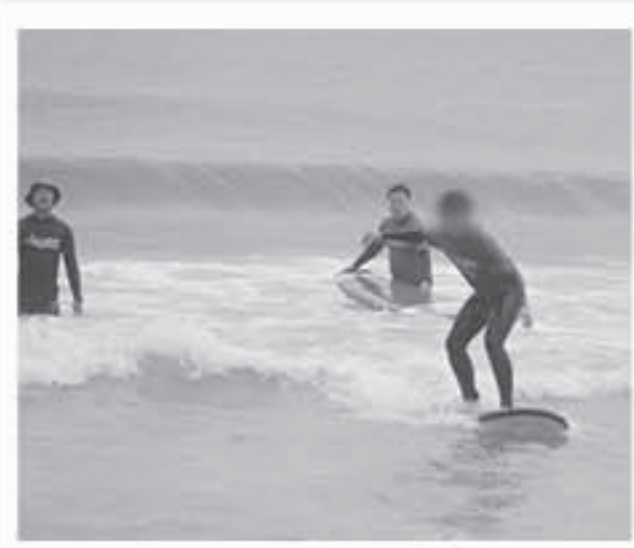


교류활동(동계올림픽/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원)

• 수련활동



춘계소풍(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지원)



하계캠프(사랑의 열매-한화리조트&호텔 후원)



추계소풍(용문사템플스테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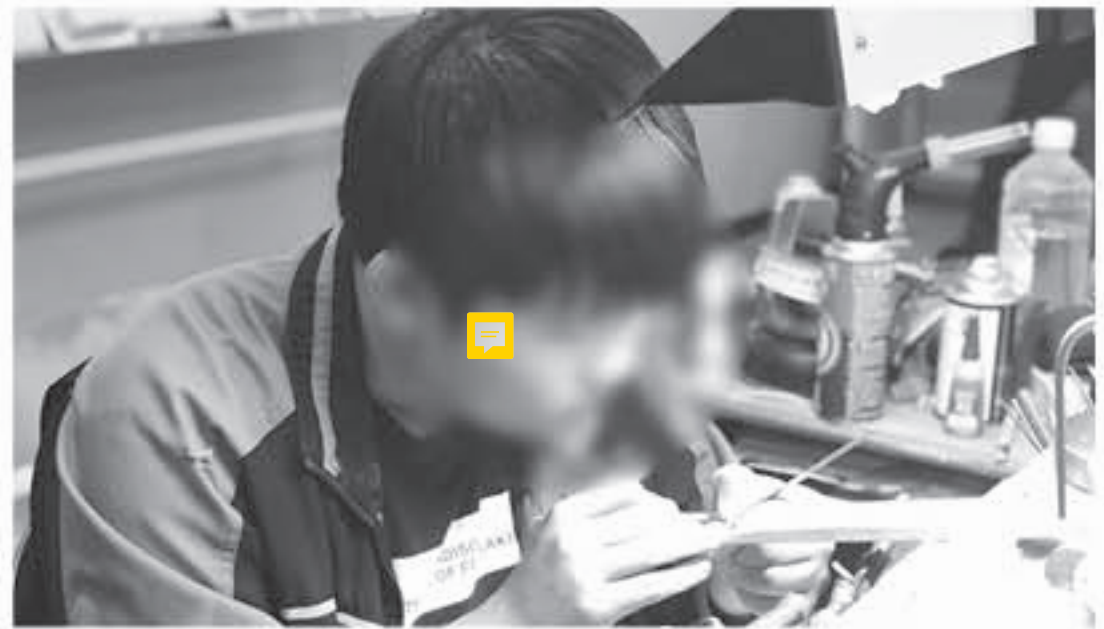


동계캠프(양지파인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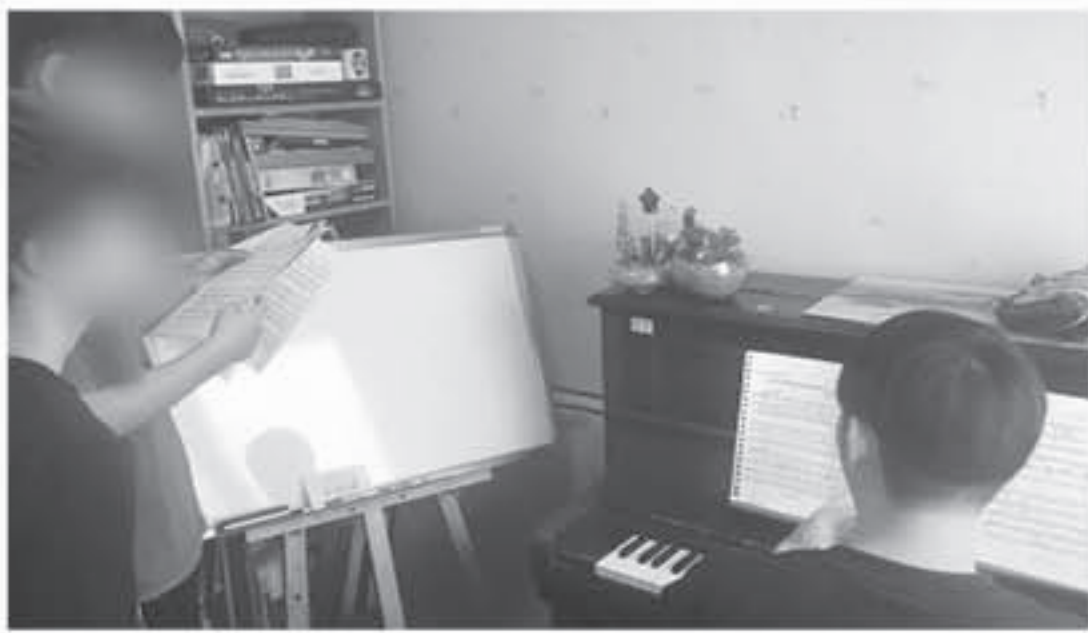
• 특화프로그램&교육



멘토·멘티데이(현장전문가와와의 만남)



멘토·멘티데이(학교방문)



음악프로그램(합창)



봉사활동(헌혈)



특별교육 - 인권(장애인식개선)



특별교육 - 성교육



특별교육 - CPR



특별교육 - 안전교육

연극을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 프로그램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공모사업 성남이로운재단**사업기간** 2018. 5. 1. ~ 8. 31. (4개월)**참여인원** 76명(실인원: 10명)

활동내용

-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연기 기본자세
- 상황극 연기, 묘사훈련, 발성연습 / · 한마음, 집중력 훈련
- 영화의 이해, 나만의 스토리 구성
- 단편영화 촬영 및 ‘숨, 심 영화제’



오리엔테이션



상황극 연습



한마음 훈련



기초 연기수업



단편영화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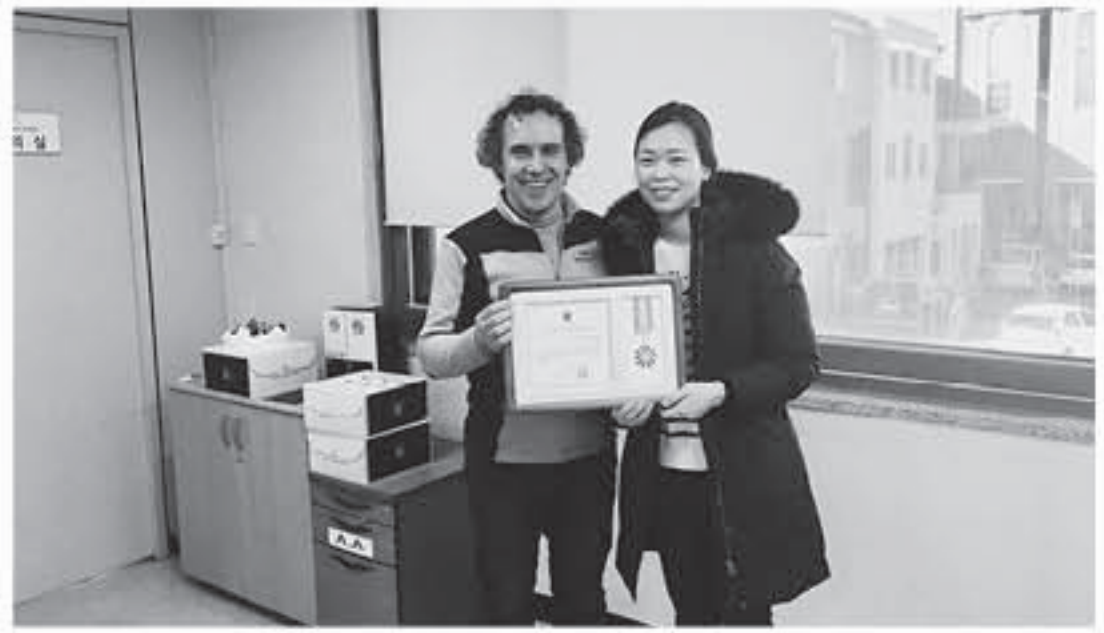


‘숨, 심 영화제’

• 심터동정



직원 리프레쉬



2018년 위기청소년지원 유공 표창



여성가족부 우수 청소년 장관상



경기도지사 모범 청소년 표창(근로부문)



관공서 아웃리치



연합 아웃리치



자원봉사자 간담회(연2회)



통합 운영위원회(연4회)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11/06 [13:59]



▲ 2018년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이전개소식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목소리가 우렁차다.

지난 2011년 개소해 현재 10명의 청소년이 생활하는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어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환경 안에서 학업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수환이와 함께

개별·집단상담, 부족한 학습지원, 의료지원,

문화활동, 진로지도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안정된 환경에서 장기간 지내는 특성상 개인별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청소년들도 많다.

2018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김수환·18세), 경기도지사 근로부문 모범청소년 표창 (강모·24세), 2018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부문) 은메달 수상(김수환·18세)을 비롯해 대학의 연극영화과 수시합격, 검정고시 합격, 꿈의 대학 참여 학생을 비롯해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발견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며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한 퇴소생의 대부분이 1인 가구로 혼자 생활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정서적 지지

망을 유지하고 있다. 군 입대와 수료식에도 빠짐 없이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논산훈련소에 다녀온 정재용 사회복지사는 “입대 동행과 수료식에 방문해 6주간의 군사 훈련을 잘 마친 것을 격려하고 돌아오며 보호자로서 사회복지사로서 한 사람 옆에 서 있었던 것만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는 말을 전했다.



▲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청소년들(용문사 템플스테이 초청)

는 곳. 어울림과 사랑, 감사를 배우고 함께 사는 사회를 경험하며, 서로 축복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면서 마음의 고향이 되어 가고 있는 곳. 여기는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다.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 군대 입소식·퇴소식에서 선생님들과 함께한 모습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던 환경 안에서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힘든 시간에 굴하지 않으며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해 바뀌가는 청소년들.

이들 옆에는 가족 구성원을 대신해 다양한 역할로 지지해주는 청소년쉼터라는 울타리가 있다.

또래의 청소년들처럼 때로는 반찬투정도 하고, 좌충우돌 사춘기를 지나 함께 울고, 웃으며 여러 분야의 자원봉사자·후원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하

● 희망이들의 이야기1

“대학 합격수기”

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합격한 중장기 최고의 배우 이○○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이렇게 후기를 쓰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대학에 합격하고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 참 신기합니다.

작년 8월 유난히 더웠던 여름, 동갑내기 박○○이 저보고 “꿈의 학교 오디션”을 같이 보자고 권유를 했고, 그때까지 확실한 꿈이 없던 상태에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으며, 오디션을 통해 노래하는 아홉사 이더라는 뮤지컬 버스킹 팀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중장기 쉼터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연극을 통해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인가를 열망하던 마음속에서 배우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라는 직업은 안정적인 직종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쉽게 하고 싶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 하던 중 더 이상 고민만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한 저는 어느 날 저녁에 멘토 쌤에게 저의 고민을 얘기하였습니다. 멘토 쌤은 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나중에 후회 하지 말고 꼭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 연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쉼터에서 제 꿈을 위해 ‘박살 연기 학원’을 연결시켜 주셨고, 최선을 다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연기과로 진학을 결심하고 입시 준비를 하면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 따라가기도 바쁘고 힘들어 울기도 많이 했지만 정말 연기를 사랑했고 이걸 포기한다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가장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배우라는 꿈이 있기에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연기를 계속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서툴고 부족하지만,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지금 제겐 꿈이 있어 행복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이들의 이야기2

“숨, 심 영화제” 대상 소감

김○○

이번에 진행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연극프로그램을 통해 내 스스로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런 감정의 표현이 일상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연극에 대해 잘 모르던 나는 촬영을 위해 발성과 여러 가지 상황극을 통해 촬영을 위한 감각을 키워나갔다.

영화를 만들 기전 각자의 스토리를 가져와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나의 시나리오에 “신입사원 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시작된 촬영... 막상 촬영이라는 것을 하게 되니 긴장이 되고 떨리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형, 동생들이 도와주고 선생님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현장에서의 느낌과 감정을 잘 알려주셔서 힘이 되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숨, 심 영화제”가 시작 되었고, 투표를 통해 대상을 받게 되었다. 이번 연극프로그램은 나만의 개성과 표현이 강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으며, 영화제를 준비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함께 도움을 준 ○○형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희망이들의 이야기3

“템플스테이 참여 후기”

김○○

용문사에 도착하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은행나무였다. 나중에 스님께 들어보니 1100년이나 된 은행나무였다. 은행나무를 본 나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 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절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절이어서 그런지 고기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저녁을 먹고 숙소 앞에 장작을 쌓아놓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휴대폰을 안 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즐겁게 놀아본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 2번째 날 아침에 팀을 짜놓고 팀끼리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렸다. 비록 늦게 가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캠프에 참여해서 치유를 받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

또한, 용문사에 가서 자연을 둘러보면서 그동안 휴대폰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했구나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웠고 염주를 직접 만들어 돌려보면서 마음이 급할 때 참고 인내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 이등병의 편지

“선생님들 하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논산 날씨가 참 좋습니다! 성남날씨는 어떤가요?

보나마나 따듯할 거라 생각해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과 문구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깐. 감기 걸리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 감기 걸리면 퇴소 확률 50%라고 합니다! 걸리면 ㄱㅇㄷ(개이득)부분?)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주면 먹고, 안주면 굶고, *라면 *고 잘 살고 있습니다. 디자인 실력을 투스타에게 인정받아 군 생활 허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점은 “라인을 잘 타야”한다는 점입니다. 계급 높은 상사, 원사, 스타급 되시는 분이 일을 시키는 일이 잦다보니 일반 사병들은 저를 건들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라인 잘 타서 군 생활 계 탔다”

아침, 자라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수료식까지 꿀 먹다가 자대로 가겠습니다.

참, 제 마음과 자세가 배뿔어졌나봅니다. 가만 보니, 뿔배뿔하네요! 초코파이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질립니다. 동기들은 부러워하더군요. 아침, 재용 샘한테 연락드렸는데, 사진 좀 보내주세요. 동기들 가족, 여친 사진보면서 하루를 버티는데 좀 부럽습니다.

인터넷편지 좀 써주십시오. 동기들 인편 쏟아지는데 저만 안 옵니다. 쪽팔립니다. 아니, 부럽습니다. 편지구걸 안 할려 했는데.... ㄱ 이상. 라인. 잘. 탄 김00이었습니다. (훈련병이 아닌, 디자인병 김00 ㄱ)

동생들에게

○○아 면접 잘 준비하고 있니? 좋은 소식 기대하마!

○○아 공부 잘 하고 있니? 열심히 해서 한양대라는 꿈 이루길!

○○아 잘 살고 있니? 레슬링 그만보고. 군대 빨리 가길!

○○아 연극 잘 하고 있니? 멋진 액터가 되길!

○○아 양말 잘 썼다. 00아 팬티 잘 썼다.(세탁 하렴^^*)

○○아 학습장 동봉했으니 공부 열심히 해라.

○○형 잘 살고 있는지 아니까 안부 안 묻겠음.


(부분밖에 안줘서 글씨체 날림. 이해 줌)



• 실습 선생님의 이야기

“실습 후 느낀 점”



실습 기관을 선택할 때 저는 장애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청소년 분야 기관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주어져서 지원한 기관이 남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였습니다. 다행히도 기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쁨과 동시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습이 시작되고 첫 출근을 했을 때 긴장과 걱정보다는 설렘과 기대가 먼저 들었고 낮은 자세로 배우겠다는 각오를 하고 실습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처음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을 먹으면서 든 생각은 집 밥을 먹는 것처럼 밥이 너무 맛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청소년 쉼터가 아이들의 울타리 역할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인상이 다들 좋으시고 일하는 분위기가 가족 같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실습일정에 포함 되어 있는 안나의 집 법인 산하기관 라운딩을 다녀왔는데 기관을 소개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서 정말 좋았던 것은 말으신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태도 그리고 진정성이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면서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찍 하교한 친구를 인솔해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무료 급식 봉사는 처음이라서 어색하기도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같이 봉사를 간 아이와 봉사자 선생님이 도와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하교한 다른 친구들도 함께 합류하여 봉사를 했습니다.

덥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봉사에 임했던 자세와 학교를 다녀와서 힘들고 피곤했을 텐데 티 한번 내지 않고 웃으면서 봉사를 끝까지 해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웃음이 절로 지어졌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하는 문화 활동을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다른 나라의 전통음식인 샌드위치와 포테이토칩을 먹으면서 한국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눌 때 재미있었고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퍼퐁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향이 좋은지에 대해 서로 뿌려보고 향을 만들어 보면서 장난도 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지만 아이들과 즐겁게 실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습기간 동안에 잘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셔서 실습할 때 크게 어려움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서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주간의 실습 기간 동안 정말 감사했고, 부족한 저를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사랑합니다”

홍장원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기 쉼터의 새로운 봉사자인 홍장원신부입니다.

저는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신부님과 함께 오블라띠 선교수도회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 서울에서 공동체생활도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영역은 가톨릭신부로서 종교교리를 가르치거나 기도를 같이 하는 것^①이 아니라 영어과외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일입니다.

영어는 제가 영어권에서 신학을 공부했^②때문에 습득할 수 있었고 상담심리는 사제서품을 받은 뒤에 추가로 받은 교육입니다. 요즘 저는 제가 받은 교육을 정말 필요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음에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을 통해서 제가 맡은 친구의 학^③점수가 상승할 때 저는 마치 아버지가 된 것처럼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가톨릭 사제로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도 가질 수 없는 저로서는 이러한 기쁨을 체험하는데 있어 많은 제한이 있기에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점수가 오를 때만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도와주는 친구의 눈빛에서 삶의 의지를 발견할 때 저는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할지라도 젊음과 배움의 열정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에게 자주 다짐합니다. “늘 젊게 살도록 노력하자. 늘 배우려고 노력하자.”

청소년들과의 상담도 정말로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상담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그 친구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무비판적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무비판적이면 무비판적일수록 아이들은 더 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될수록 마음이 더 풀어지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저는 종교인으로서 모든 상황을 일반화시킨 상태에서 보편적인 답과 진리를 찾고 제시하는데 ‘익숙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저에게 있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영어교육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소장님과 담당선생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부와 상담으로서 저와 동행하는 친구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홍장원 신부님 상담사진

•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인연(因緣)”

평내 성당 “나눔회” 박경희 소피아

어느덧 아이들과 인연을 맺은 지 1년이 되어간다.

추웠던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이 오기 시작하였고 비좁고 가파른 언덕길에 주차하기조차 버거운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겨우겨우 주차했던 기억.

이제는 넓고 편안하고 깨끗한 거리와 건물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아이들과 만난다.

매번 그렇듯이 아이들을 만나기전은 설레이고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맛있게 해줄까 생각하며 제법 이른 아침 남양주에서 기분 좋게 출발한다. 이렇듯 남양주에서 성남까지 편안하게 봉사 할 수 있음은 기꺼이 차량봉사를 해주시는 양옥희비비아나 자매님. 연약한 몸인데도 말없이 초지일관 봉사해주시는 맏언니 강혜명루치아 자매님의 변함없는 마음이며 막내인 나는 그대로 두 분의 그림자를 밟아가며 배우고 성장한다.

처음엔 눈 맞추기도 어색해 했던 아이들이 이젠 제법 눈도 맞추고 인사도 한다.

맛있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어설프게 각자 설거지도 해놓고 돌아서는 모습은 모두들 내 아들 같고 참 예뻐 보인다.

각자의 적성에 맞춰 자격증을 준비하고 연기학원에 다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아이들. 그 중엔 대회에서 성과를 내며 자기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면 축하해주고 다시 도전하라며 응원 또한 아끼지 않는다.

이렇듯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 또한 다른 이에게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각자의 필요한 은총을 주시리라 믿는다.



• 사회복지사 이야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에서 생활지도교사로 근무 중인 손주일입니다. 어느덧 근무한지 1년이 넘어가면서 이정도 시간이면 아이들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그 생각과는 다르게 성장기의 아이들이라 그런지 지금도 매일매일 외적·내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썽도 부리고 문제도 일으키지만 그 사건들을 해결해 감에 있어 내적으로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보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즐겁기도 하면서 신비롭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른 직장과는 다르게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아이들을 마주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변화무쌍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생활지도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 저는 철이 없었고 철이 왜 들어야 하는지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나도 아직 철이 안 들었는데 과연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늘 머리 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저도 성숙하지 못한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들은 저보다 더 어리고 여리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민을 듣고 있으면 학창시절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10여명의 남자 청소년들을 지도하다보니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과 관계 맺는 것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여기서 물러난다면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과 책임감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단순히 자식이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이 말입니다.

앞으로 중장기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모든 입소청소년이 건강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일이 아닌 가족의 마음으로 그들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1월	(주)트리마란 100,000 / 김종민님 20,000 김동환님 30,000	7월	김윤자님 100,000 / 김태현님 100,000 / 이해란님 1,000,000 김종민님 20,000 / 김동환님 30,000 / 미정 1,000,000
2월	경기도청 200,000 / (주)트리마란 100,000 학소장학금 500,000 / 김동환님 30,000 / 김종민님 20,000	8월	김윤자님 100,000 / 김태현님 100,000 김종민님 20,000 / 김동환님 30,000
3월	김동환님 30,000 / 김종민님 20,000	9월	김윤자님 100,000 / 김종민님 20,000 김동환님 30,000 / 경기도청 200,000
4월	김종민님 20,000 / 김동환님 30,000 KT&G복지재단 100,000	10월	김윤자님 100,000 / 조문호님 100,000 김종민님 20,000 / 김동환님 30,000
5월	(주)트리마란 100,000 / 김종민님 20,000 / 김동환님 30,000	11월	김윤자님 100,000 / 김종민님 20,000 / 김동환님 30,000
6월	김윤자님 100,000 / 김종민님 20,000 / 김동환님 30,000	12월	김윤자님 100,000 / 경기도복지 200,000 김종민님 20,000 / 김동환님 30,000

♡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1월	김현희아네스님(간고등어, 스테이크 9봉) / 미소앤에그(계란 40개) / 한국과학창의재단(도서 40권) / 이매동성당(주,부식 및 간식)
2월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참치 4박스) / 이매동성당(주,부식 및 간식) / 태평4동 주민센터(세제, 참치, 화장지 각1박스) H 컴퍼니(피복, 영화티켓, 세제, 화장지, 주·부식 및 간식) / 이창재님(컴퓨터 본체 1개) / 입소생 박00 아버지(참치세트 1상자) 미소앤에그(계란 20개) / 퇴소생 최00님(음료 1상자) / 김명진님 딸기(4팩)
3월	김미영님(화장지 1박스) / 입소생 김00 아버지(로스팜 1상자) / 나병찬님(음료 1상자) / 연희테크(침구 10개) / 하이스트학원(시리얼 4상자) 이매동성당(주,부식 및 간식) / 퇴소생 최00님(제과 1상자) / 미소앤에그(계란 40개)
4월	(주)푸디아(보쌈 20인분) / 입소생 강00 아버지(티셔츠 1박스) / 이매동성당(주,부식 및 간식) / 미소앤에그(계란 20개) / 나병찬님(음료 1상자)
5월	목포중장기센터(참외 1상자) / 이매동성당(주,부식 및 간식) / 성남시 교육청소년과(공기청정기 2대)
6월	미소앤에그(계란 20개) / 이매동성당(주,부식 및 간식) / 천성훈님(치킨 2상자)
7월	카페미르(케이크 2상자) / 윤점숙님(쌀 20K 1포) / 김미영님(세탁세제 1박스)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컵밥, 티셔츠 1박스)
8월	카페미르(케이크 1상자) / 김호정님(아이스크림 2상자)
9월	성남시청(신발 19족) / 미지정(생필품 3박스) / 나병찬님(음료 1상자) / 성남시교육청소년과(스팸외 1상자) / 중원구청(세탁세제 2포) 김호정님(육식용품 1박스) / 파파존스(피자 7판)
10월	의정부쉼터(음료 1상자) / 미지정(화장품 10개) / 홍인정님(음료 1상자) / 이매동성당(주,부식 및 간식)
11월	해피유(포스터 디자인 1회) / 홍성미님(포스터 인쇄 10부) / 홍장원님(쌀 40K, 찹쌀9K) / 이매동성당(주부식 및 간식) / 성남중원청소년수련관 (김치5박스) / 중부제일교회(과일 1박스)
12월	남명은님(간식 1상자) / 홍인정(치킨 6마리) / 이매동성당(주부식 1박스) 추가

♡ 봉사자님 소개

☞ 학습봉사자(국어- 권후자님 / 영어- 홍장원님 / 학원지원- 분당대치우리학원, 박살연기학원) / 프로그램 지원 한양대(유봉영님), 자기자리 진로교육 센터(김호정님, 김경선님, 이보경님, 배소영님), 용문사 템플스테이(진각스님) / 생일 케이크지원- 카페 '미르' (정현영님) / 식사봉사- 이매동성당 빈첸시오회, 평래동성당, 코이노니아 / 시설유지보수- 이경규님 / 세탁지원- '평화사' (박지희님) / 행정봉사- 김태현님

한 해 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
18

성남시 단기 청소년쉼터 (남자)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 쉼터란?

가족 내 갈등, 폭력, 방임,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기능 상실, 학교부적응, 개인 및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시 및 단기 보호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전문적 개입을 실시하여 위기청소년과 가족을 돕고,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청소년 보호시설입니다.

• 설립 및 운영주체

설 립 2006년 7월 5일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설립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 연혁



2006 07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위탁사업 실시
 11 시설 개보수 확장

2007 08 "내일을 향해 걷는다" 국토순례 실시
 10 거리상담 사업실시

2008 07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재위탁
 11 "나를 찾아 희망을 찾아"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2009 10 "푸름이들의 희망찾기" 지리산둘레길 걷기 실시

2010 03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운영위원회 발족
 10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 금연학교 실시
 11 "미래를 향해 열린 문" 역사이론체험교실 실시

2011 05 한국 GM 한마음 재단 스파크 차량기증
 06 "해상왕 장보고의 꿈을 쫓아서" 중국탐방 실시
 06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재위탁

2012 03 사랑의 열매 & 두산기업 공동지원 "공부방 운영사업" 선정
 08 "보고 듣고 즐기는 우리의 전통문화" 한국전통문화체험 학교 실시

2013 05 "푸름이들의 희망교실" 검정고시 대비 공부방 운영

2014 11 시설 개보수

2015 07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 활동 실시

2016 06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재위탁
 07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 운영비 지원
 08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평가(최우수기관선정)
 11 '열려라 나눔아! 피어라 희망아!' 한미약품 지정기탁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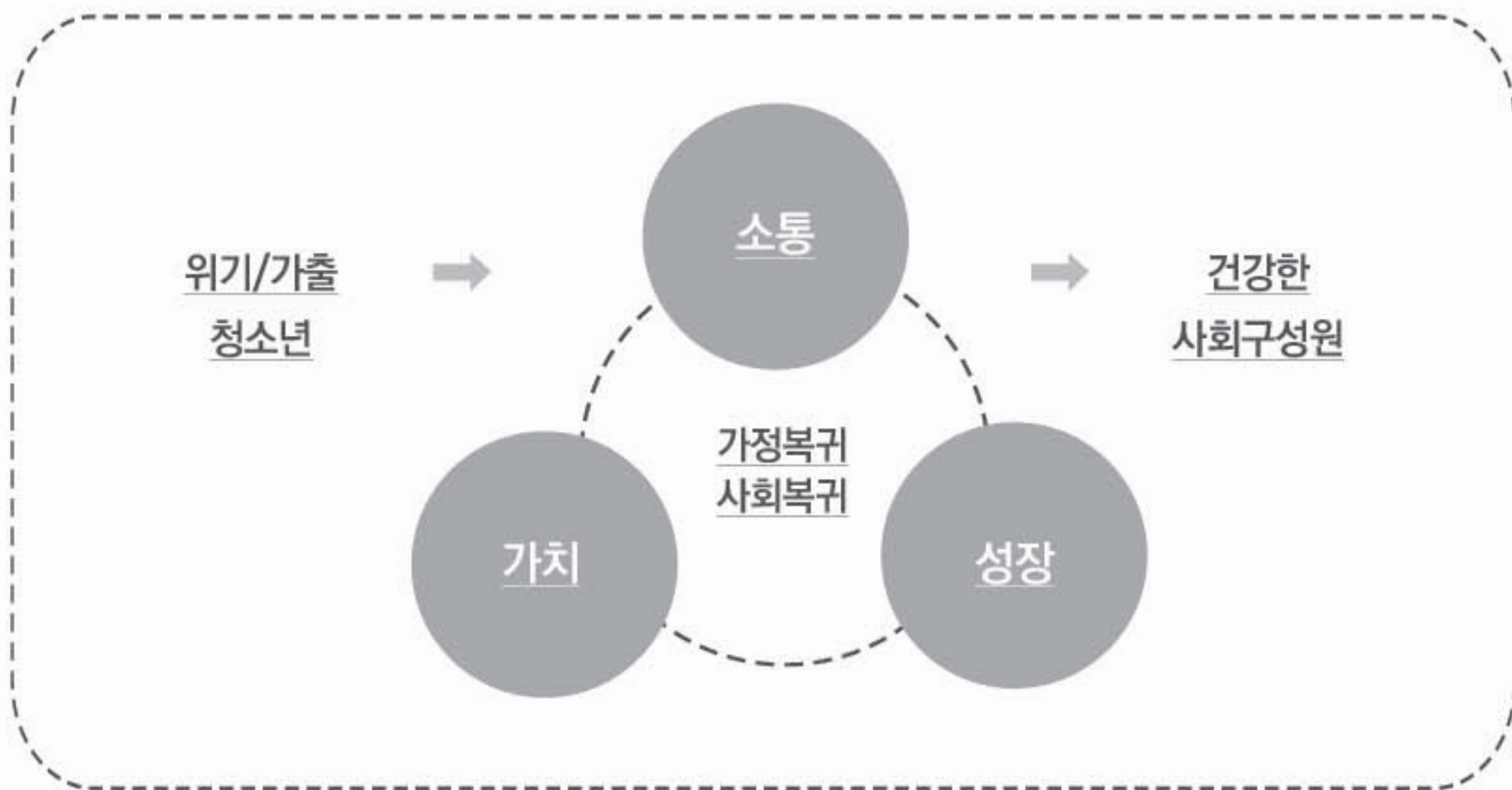
2018 06 청소년 창작 뮤지컬 'COME BACK HOME' 공연 3회(분당소극장)
 09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8박 10일)

2018 04 시설 이전
 06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재위탁
 08 청소년활동지원사업 선정 "울·사·단"
 11 연세와이엘의원 협약

• MISSION & VISION

MISSION 청소년, 그 푸른 잠재력의 출발선

VISION 배움과 소통을 통해 가정 및 사회복귀로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청소년 쉼터



소통(비행예방형)

-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한 일차적 예방 및 가정으로의 복귀.
- 학교 아웃리치(예방프로그램)를 통한 이차적 예방.

가치(학업형)

- 학업흥미 유지 및 맞춤형 학습을 위한 개별 청소년 단계별 학업지원,
- 쉼터 자체 내 대안학교 운영을 통한 학위인정.

성장(진로탐색형)

- 인턴십 제도(MOU) 체계화를 통한 심층된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 Dream Up : 각 분야별 전문 사회인과의 만남 → 직업탐색 → 꿈 지도 완성.

● 직원현황

이 름	직 위	업 무
박성진	소 장	대외협력 및 총괄
최지엽	팀 장	프로그램개발, 운영실적
강병선	주 임	사례관리, 소방관리, 홈페이지관리
전창현	주 임	청소년활동지원, 건강지원
이민아	청소년상담사	입/퇴소 및 사례관리, 자립지원
서기범	사회복지사	청소년활동지원, 기초생활지원, 시설관리
안요한	사회복지사	야간생활지도, 사례관리
신형석	사회복지사	야간생활지도, 사회적응프로그램
황기선	행정원	회계 및 행정업무
배인서	주임	이동형 아웃리치 총괄
문보운	사회복지사	이동형 아웃리치
박준영	상담사	이동형 아웃리치
황지은	청소년지도사	이동형 아웃리치
장어진	사회복지사	이동형 아웃리치
정혜자	취사원	입소생 주간 식사관리

● 2018년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 사례수

(단위: 명)

구분	입소생	합계
진행 사례수(실인원)	110	110
신규등록 사례수	96	96
연인원 사례수	4,639	4,639

▼ 입소연령

(단위: 명)

구분	남자				합계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3	8	50	49	110

• 2018년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 보호기간별 입소청소년 현황

(단위: 명)

구분	보호기간					합계
	15일미만	15일~30일	31일~90일	91일~180일	180일초과	
	44	13	28	13	12	

▼ 사후관리

(단위: 명)

구분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서신상담	기타	총계
합계	76	8	1	24	1	85

▼ 퇴소현황

(단위: 명)

구분	퇴소사유							합계
	가정 복귀	취업으로 인한 자립퇴소	타시설 이관	구속 등 법률기관 강제이관	규율위반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강제퇴소	무단 퇴소	자립육구에 의한 합의퇴소	
	33	5	27	1	1	15	15	

▼ 상담지원현황

구분	개입방법					합계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심리검사	서신상담	
재학생-초등	17	7	3	-	-	27
재학생-중등	134	62	4	11	-	211
재학생-고등	751	358	34	60	-	1,203
재학생-대학	43	31	7	8	-	89
졸업생-초등	-	-	-	-	-	0
졸업생-중등	-	-	-	-	-	0
졸업생-고등	-	-	-	-	-	0
졸업생-대학	613	185	14	22	-	834
학교밖	813	356	51	36	-	1,256
합계	2,371	999	113	137	0	3,620

• 아·지·트 운영현황

▼ 사업수행 지역 및 일정

활동 지역	학교아웃리치	야탑역 1번 출구	경기광주 (청석공원)	신흥역(지하상가 쇼핑몰 2번 출구)
활동 일정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활동 시간	12시 40분 ~ 13시 50분	18시 ~ 24시	18시 ~ 24시	18시 ~ 24시

▼ 사업수행 지역 및 일정

생활지원 및 보호사업	- 기초생활물품, 식사, 일시적 보호 - 쉼터 연계 및 문제 상황에 맞는 기관 연계
상담·정서 및 의료지원 사업	- 청소년들과의 상담 및 소통을 통한 공감과 정서적 지원 - 심리검사를 통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문제 파악 - 전문가(의료, 법률)를 통한 전문 상담 제공
청소년활동프로그램	-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 - 예방 교육(성, 인권, 중독)을 통한 위기 예방
가출예방활동사업	- 배회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패트롤 활동
특별사업	- 교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아웃리치 -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연합 아웃리치 - 정기적 활동 외 특별 활동 프로그램(3주년 프로그램, 해변 아웃리치 등)

▼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이용 청소년	접촉 청소년(패트롤 및 홍보)	계
	8,955	9,858	18,813

▼ 연령별 이용 청소년 현황

(단위: 명)

구분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계
	66	2,145	5,771	973	8,955

▼ 이용 청소년 상태

(단위: 명)

구분	가출청소년	배회청소년 (전환형/ 가출경험 유)	비 가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복)	계
	18	1,3666	7,571	1,037	9,992

▼ 가출 및 위기청소년 조치사항

(단위: 명)

구분	귀가	일시보호	보호시설 연계		아지트 서비스제공 (중복)	계
	1	6	타 시설 연계	쉼터 입소		
	1	6	0	0	14	21

▼ 가출 및 위기청소년 조치사항

(단위: 명)

서비스 제공 실적	먹거리	피복류	위생 용품	보드 게임	휴대폰 충전	게임기	의료	홍보 물품
	23,792	17	12	508	191	18,599	97	0
	상담	심리 검사	귀가 지원	문화 상품권 (쿠폰선물)	특성화 교육	활동 프로그램	사례 관리	사후 관리
	610	59	1	12	385	4,100	59	14

특별사업<학교 아웃리치 운영 현황>

● 사업목적

위 사업은 2018년부터 학교로 찾아가 가정·학교 밖 위기청소년으로 발생되기 전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쉼터 및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에 대한 홍보·예방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 정보제공을 실시하고자 한다.

● 사업대상 관내 학업 유지 청소년(성남시)

● 사업수행방법 운동장 및 교문 앞(이동버스를 이용한 홍보·교육·프로그램 진행)

● 사업수행방법

활동지역	성일중·고	풍생중·고	테크노과학고
활동시간	12:50~13:50	12:40~13:40	12:50~13:50
활동일정	5월~10월(2,3,4주차 수요일), 11월~12월(1,2,3주차 화요일)		

● 사업수행방법

홍보활동	쉼터 및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정보제공	다양한 고민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 각 호소하는 문제 유형에 맞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자료 제공.
교육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 되는 것을 막고 위험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출예방 교육 및 위기 상황 대처방법등에 대한 교육 진행.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 되는 것을 막고 위험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출예방 교육 및 위기 상황 대처방법등에 대한 교육 진행.

● 사업기대효과

하나. 가출 혹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 시 청소년 유관기관 또는 쉼터 등을 이용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두울. 생존을 위한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이용현황

(단위: 명)

이용청소년	접촉청소년(홍보)	계
4,557	11,245	15,802

▼ 지원서비스 현황

(단위: 명)

구분	간식	홍보	프로그램 및 교육	계
성일 중·정보고	3,754	3,704	1,709	9,167
풍생 중·고등	4,509	4,601	2,113	11,223
성남테크노 과학고등학교	2,013	2,940	753	5,706
소계	10,276	11,245	4,575	26,096

▼ 학교&연령별 참여 청소년 현황

(단위: 명)

구분	횟수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계
성일 중·정보고	7회	574	241	193	319	208	174	1,716
풍생 중·고등	7회	375	163	134	459	579	403	2,120
성남테크노 과학고등학교	5회	-	-	-	249	320	168	740
소계	19회	949	404	327	1,025	1,107	715	4,576

▼ 학교 아웃리치를 통한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현황

(단위: 명)

구분	쉼터역할	아지트역할	유형별 상담 기관정보	계
성일 중·정보고	670	935	106	1,711
풍생 중·고등	788	1,172	150	2,110
성남테크노 과학고등학교	319	332	74	725
소계	1,777	2,439	330	4,546

• 활동·교육·운영



수련활동<병영캠프>



문화활동<요트투어>



교류활동<축구>



직업체험<목공예사>



검정고시 공부방



특성화교육<약물중독예방교육>



자원봉사박람회



운영위원회

• 이동형 아웃리치 'A.지.T'



전국동시연합아웃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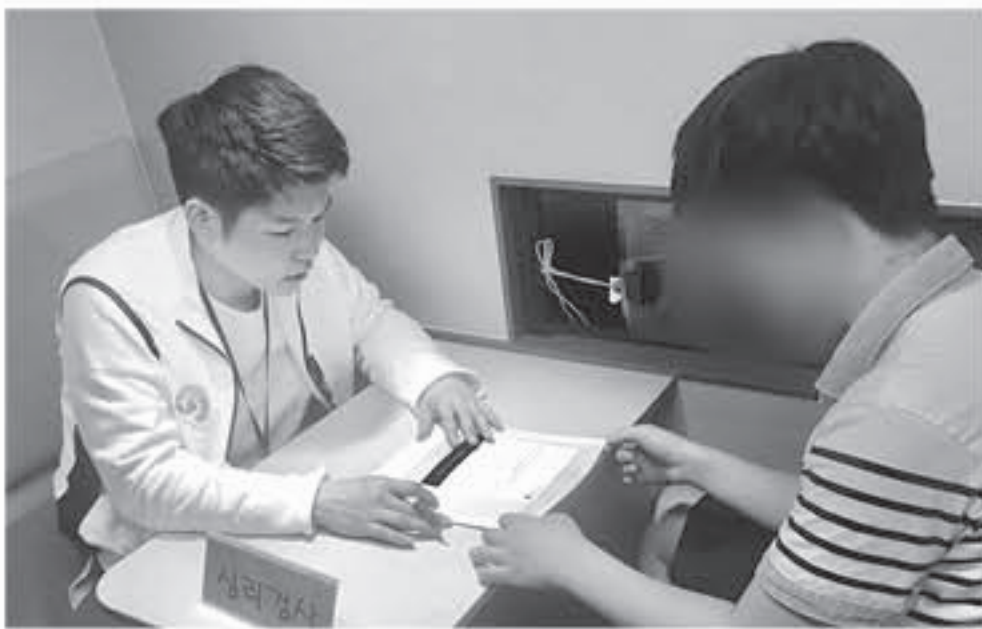
해변아웃리치



3주년 행사



성교육



심리상담



의료상담



밥묵차



중독예방교육

• 학교 아웃리치



성일중·정보고등학교



풍생중·고등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 외부공모사업-울.사.단!



청소년 쉼터에서 인생을 바꾸다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퇴소생 김 ○ ○

안녕하세요 저는 단기쉼터에 있었던 한 입소생입니다.

저는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해 12월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나가고 친구에게 상황을 얘기하니 청소년쉼터라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청소년쉼터라는 곳을 알려준 적이 없었고 이런 곳이 있다는 정보를 접할 기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을 때 청소년 쉼터는 뭐하는 곳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에 전화를 하니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서 모란에 있는(현재는 위례시)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로 갔습니다.

쉼터에 가니 선생님께서 집을 나간 이유나 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입소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나니 '확실히 집을 나왔구나'라는 느낌이 확 났습니다.

쉼터에서의 첫째 날 밤 저는 쉼터 아이들과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중 가족 간의 불화, 가정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쉼터를 전전하며 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쉼터에 오기 전의 저는 설마 이런 애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가출 청소년은 단순히 집이 싫어서, 사고치고 집에서 쫓겨나서 가출한 것 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완전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쉼터 안에서는 착한 아이들도 있었고 저에게 잘 대해준 친구들도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는 형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저는 쉼터 생활이 어느 정도 저하고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쉼터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입소할 때 가족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많은 심리적 부담감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4월 중순에 위례로 이사를 가야한다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물론 시설이 모란에 있을 때보다 엄청 좋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30분 일찍 일어나야 했고 12시 가까이 되서 쉼터에 오게 되는 것은 많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험생이라는 신분과 가출 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오는 불이익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아이들하고도 사소한 것으로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 들과 사이도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쉼터에 오면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생님들께 얘기하다 보니 명쾌한 해답을 얻을 때도 있었고 제가 직접 답을 찾을 수 있게 단서를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 성격적인 문제 외에도 대인 관계, 성적 등 많은 일들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쉼터가 단순한 욕구만을 해결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선생님에게서 상담에 필요한 기술과 심리학 이론들을 알아갈 수도 있었고 쉼터 생활을 하면서 빨래나 요리 같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기술들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느끼는 것이지만 쉼터에 오고나서 한층 더 발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9월 초 지방에 있는 한 국립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으로 돌아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게 해준 청소년 쉼터, 선생님들과 그 공간이 고맙고 그립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변화를 느끼게 해준 쉼터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입소생 김 ○ ○

난 쉼터에 와서 많이 변하였다. 예를 들어서 쉼터에 오기 전까지는 친구들과 술을 먹고 담배도 피고 가출도 자주하며 학교도 안 나가고 선배 또는 친구들과 술, 담배는 기본으로 절도와 같은 잘못을 하고 오토바이, 폭행, 절도, 특수절도 등의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학교도 일방적으로 안 나가거나 늦게 갔다. 옆 학교에서 잘나가는 친구와 술을 먹고 학교를 1주일간 안 나갔고, 무슨 일만 있으면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갔다. 하지만 쉼터에 오고 나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말로 싸움을 풀려고 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다. 수학 성적이 9점 올라가고 선생님들의 칭찬도 많이 받고 글쓰기로 중학교에서 최우수상을 3개나 받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을 해 와서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위원회, 선도위원회가 여러 번 열렸지만, 쉼터에서는 교육도 많이 받고 선생 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 더 이상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경찰서에도 안 불려가고 행동들도 많이 달라졌다.

가족들과 관계도 더 좋아지고 더 중요한 건 옛날에는 학교에서 놀러가거나 운동회가 있었을 때도 가기 싫어 했는데, 운동회나 놀러갈 때만큼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담당샘에게 운동회 날 오시라고 말씀 드렸고 담당샘이 정말로 와주셨다.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계기는 쉼터에서 수많은 교육들과 선생님과의 상담을 하면서 깨닫고 조금씩 배워가면서 느끼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쉼터에 오기 전 비행을 저지르다가 쉼터에 왔는데 쉼터를 온 후 나의 담당선생님 병선샘,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형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라는 걸 느꼈다.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느낌은 보호받는다는 걸 인식했을 때였다.

좋은 방향으로 날 변화하게 해준 쉼터, 앞으로도 생활을 잘할 것이고 계속 좋은 쪽으로 변할 것 같다.

Thank you A.지.T

아지트 방문 청소년 정 가 은

새 학기 시작 후 친구 관계에 있어 지쳐 힘들어 지쳐있을 때 아지트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공감해주신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정말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별쫂하고 어려웠지만 그 이후 스스럼없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지트란 입시생 활로 꽉 막혀 답답했던 저에게 유일하게 희희낙락한 곳이며 항상 고민과 입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로와 격려를 통해 저에게 힘이 되어주신 선생님들과 지낼 수 있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학교생활을 마치고 독서실 가는 길 잘생기고 예쁜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하고 게임하며 숨통을 트이고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매사 부정적인 저에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꿔준 아지트라는 곳은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느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반갑게 맞이해주시며 수고해주신 선생님들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키워준 아지트라는 곳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지트를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첫 번째 방문이 두려워 머뭇거리는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 아지트 방문을 수 있게 선생님들의 마중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변화를 느끼게 해준 심터

아지트 방문 청소년 김 재 민

나는 아지트를 처음 봤을 땐 올해 5월 학교 아웃리치라는 것을 보고 갔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는 상당히 시험공부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고 학교에 다녀오고 힘들고 지칠 때 기댈 곳이 집 밖에 없었다. 또한 학교에는 Wee 클래스 선생님이 계셨지만 참아 내 고민을 많이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도 고3이다 보니까 참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에 치이고 저런 일에 치여도 나는 꼭꼭 참고 한번 이겨 내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지만 쉽사리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지트를 가보 자라는 생각을 해보 았다. 또한 내가 아지트에 가게 된 계기로는 내 고민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난 사회형이라 사람들과 많은 교감과 말을 많이 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지트를 처음 갔을 때 나는 너무 신세계를 느꼈다고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내가 이 수많은 선생님들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김하중 신부님을 TV를 통해 보았지만 나는 실제로는 볼 수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실제로 봐서 너무 놀랐고 또한 기분 역시 좋았다. 그리고 나는 1달 뒤인 6월에 내 친구 지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고 맨날 만나보면 너무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어 아지트를 같이 가보자고 했지만 지호는 쉽게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지호에게 아지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아지트가 무엇을 하며,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이다. 그러자 지호는 조금씩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거리낌 없이 아지트를 올수 있게 되었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 재민아 너 덕분에 내가 기분이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지트라는 것은 나에게 휴식처 같아”라면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했다. 비록 지호의 성격은 너무 조용한 성격이지만 아지트에 오면 성격이 정반대가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지호가 이렇게 아지트에 오면 웃는 미소로 떠는 것이 나는 행복하고 뿌듯하다. 또한 아지트에 잘 데리고 왔다고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평소에 지호가 웃는 얼굴을 잘 안 띄우지만 여기에 와서는 잘 미소를 띠는다고 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생각하는 지호가 아닐 텐데....”라는 생각도 가끔 한다. 내가 여기에 와서 선생님들과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도 했다.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편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다. 누구보다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나의 고민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고 같이 풀어서 기분이 좋다는 생각을 종종하곤 한다. 내가 아지트에 대해 바라는 점은 딱히 없고 개선할 점도 딱히 없다.

하루하루..



강 병 선 주임

‘그래도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어른이잖아요’ 한 쉼터에서 퇴소한 아이를 상담하며 들었던 한 문장입니다. 청소년쉼터에서 종사하며 다양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나름 공감하고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머릿속을 문장 하나로 훑트려 놓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퇴소생의 현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복지현장에서 일하며 나름 경력이 생겼다, 아이들을 만나보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닐까, 또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나만의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던가, 마치 번개가 치듯 머릿속에 충격이 일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어른으로서 이 시대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이 덧나지 않도록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라는 정해진 답이 없는 고민을 스스로 되뇌기도 합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점차 1인가구로 변모하는 시대상에, 또한 문물적 편리함으로 개인화되는 요즘에 아이들에게 사람끼리 사는 사회를,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따뜻함을 알려주고자 쉼터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과 번뇌로 씨름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이 시대적 흐름에 살아남기 위해 방황하는 청소년들 모두 제 역할에 충실하길 하루하루 응원하겠습니다.

비상(飛上)

장 어 진 사회복지사

무덥고 습한 여름에 입사하여 어느덧 코끝이 시린 겨울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청소년들과 소통할 기회가 전혀 없던 저로서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청소년 하면 개인주의가 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지트' 덕분에 부정인 생각이 아이들과 활동하며 대화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로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수많은 청소년들과 대화하며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아와 모범생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모범생들이 하는 행동과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경우 선생님이나 사회적 시선이 곱지 못하며 그 아이가 잘못됐다며 나무라곤 합니다. 단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어른들이야말로 순종이라는 틀에 청소년들을 가두려 하며, 그 틀을 거부하는 청소년들을 도태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청소년들은 법에 접촉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은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 청소년이며 어른들이 청소년들 앞에서 성숙한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면 청소년들 역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문제아라고 불리는 청소년들과 10분 만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청소년이 문제인지 그 청소년이 처한 환경이 문제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지트에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 성인인 제가 미안할 정도의 힘든 일을 겪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대화, 공감, 위로, 사과, 미소를 건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 다섯 가지에 가장 행복해합니다.

만약 저에게 청소년들과 성인의 벽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교류가 적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인들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저 역시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인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

국어공부방 정 해 빈

‘더불어 사는 삶’, 제가 4년째 근무하고 있는 분당 이우고등학교의 기본철학입니다. 학교에서 지내는 3년의 시간동안 입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부단한 자아성찰과 자기발견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적 삶의 강조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가 지향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정작 교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메아리로 들리겠지요. 그래서 당장 누구의 삶의 변화가 아닌 자신의 삶부터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자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하는 고민 속에서 국어수업지도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1365자원봉사 포털에 올라와 있는 쉼터 의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고문의 등록시기 가 한 달여나 지났는데도 아직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직 봉사자를 찾지 못했나보구나’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였을까?’ 다른 봉사보다도 마음이 갔기에 그렇게 만나게 된 쉼터는 일주일의 제 스케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도 의왕시에서 9년간 야간학교 봉사를 했던 저에게 검정고시 수업은 익숙한 것이었지만 새로운 장소와의 만남은 언제나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무기력하지 않고 공부에 의욕이 있는 학생을 만나게 됐고 방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인사해주시는 사회복지사님들 덕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쉼터 봉사를 하면서 단기적인 목표는 내년 4월에 있을 검정고시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참 딱딱할 것 같습니다. 저는 봉사도 가깝게는 학생과의 만남이고 길게는 학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의 만남이지만 고민을 들어주고 자신들의 삶에 공감해주는 공동체의 동반자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딱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수한 사람 냄새나는 세상임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학생에게는 어른들이 본인을 포기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주변에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리라 기대합니다.

당장 쉼터에서 만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봉사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학교의 교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불어 사는 삶을 내면화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로서 응당 해야 할 과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삶이 신부님과 같은 종교인들이나 사회복지사님만의 몫으로 남겨두기에는 벅찬 것이겠지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 함께 봉사에 참여하면서 살 맛 나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삶이 당연한 세상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봉사하는 삶을 허락해주신 쉼터의 관계자 여러분들과 쉼터에 음으로 양으로 애쓰시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변화는 땀을 요구한다.

인문학강의 김 연 순 교수

2018년 3월 어느 날 성남동성당 김하종 신부님의 부탁으로 노숙인 대상 인문학 강좌 제안을 받았다. 흔쾌히 받아들여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신부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시어 위례습터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봉사자는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약간의 고민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5월 처음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한 시간이 양가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환경속의 인간은 개인과 환경 모두에게 책임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은 조금 빛나갔다. 닫혀있는 마음과 무기력한 태도를 보면서 어설피게 혼자 떠들어야했던 새로운 나를 보았던 시간이었다.

변화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변화의 정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큰 고통을 감내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원하는 것” “고통 감내” “새로운 습관” 이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중 우리 청소년들은 “새로운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방황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어느 책에서 읽었다.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나로 인한 방황으로 고민과 상실감이 들겠지만, 이 방황이 너무 길지 않은 여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열정을 자산으로, 가능성을 자신감으로, 긍정을 추진력으로, 도전을 무기로 생각하고, 청소년들아!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의 밝은 빛으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끝으로 습터자원봉사자로서 봉사가 아름다운 까닭은 순수한 인간의 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할 기회를 주신 김하종 신부님과 청소년습터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봉사의 소중함을 느끼다.

아지트 활동봉사자 이 두 희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한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어떤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내 존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봉사기관으로 정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청소년을 위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청소년 관련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지나쳐 간 아지트가 생각 났다. 초록색 천막과 노란색 버스, 집에 가기 위해 걷던 그 길 위에서 본 아지트의 첫 모습이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 전공시간마다 듣게 되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그 때 내 머릿속에는 아지트가 떠올랐다.

봉사신청을 위해 전화기 들었지만, 사실 많은 걱정거리가 가득했다. '지나가는 학생이나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참 멋쩍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이곳에 온 친구들과 친해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엄청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처음 아지트 천막에 갔을 때, 매우 어색해서 난로 앞에 있어도 추운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지트 선생님들의 도움과 먼저 다가와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나의 걱정은 난로 앞의 온기와 더해져 사라져갔다. 첫 날, 아지트 활동을 끝내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 '다음 주에는 못 오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봉사활동 신청을 하라는 메시지에 내 몸은 자동적으로 반응하여 참석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의 내면에는 친구들과 만나고, 이야기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여러 번 아지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천막에 오는 친구들이 모두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 또한 이 친구들로 인해 힐링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봉사를 시작한지 9개월 정도 되어간다. 이제는 친구들의 이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존재한다. 다른 건 몰라도 2018년이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것이 내 목표이다. 아직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희로애락과 고민까지 들을 수 있었고,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나에게 아지트 활동에 참여한 시간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배우고 느낀 것이 많은 소중한 시간이었음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이 시간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함께해준 아지트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감사 표하며 소감문을 마친다.

열린 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 전문봉사자(법률) 이 혜 선

“그럼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2016년 겨울,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 있을까 전화로 문의 드리니, 선생님께서 일단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가서 보니, 노란 버스 옆 초록 천막 안에서 맛있는 밥 냄새가 났습니다. '거리이동상담'이란 말에 줄곧 상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둘씩, 서넛씩 무리지은 아이들이 와글거리며 들어서자, “어- 왔어? 밥 먹어, 밥” 하며 여러 선생님들이 반깁니다. 웃음과 포옹이 오갑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쭈뼛거리며 인사드리자, 역시나 저에게도 얼굴 가득 웃으시며 권하십니다.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여기 앉아 식사하세요.” 그 날, 찬바람 부는 길 위에서 따뜻한 천막 아래로 들어가 먹은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거리이동상담이니까, 저는 법률상담을 하겠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자원봉사를 구실 삼아 좀 더 본격적으로 아지트의 밥과 빵과 음료를 축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만 즐겁고 밥값은 못한 것 같은 날이 이어 집니다. '사실 내가 변호사인데...'하고 들이대 봐도 시큰둥합니다. 법률상담 봉사인데 법률상담이 없어도 괜찮은 걸까. '친구들이 법률문제는 별로 없나 봐요'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던 어느 날, 선생님이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예요, 선생님. 기다려보세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여전히 아지트 밥과 간식은 맛있고, 선생님들은 친절하시고, 아이들과 노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점점 얼굴이 익은 아이들이 많아지고, 반갑게 부를 수 있는 이름도 많아집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바람이 불고, 해가 한참 길어졌다 다시 짧아질 무렵, 아이들이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변호사시죠? 제가요...” 사무실에서 요청에 응하는 상담에 익숙해있던 저는 아지트에서 사계절을 꼬박 보내고서야 아이들과 한 겹 한 겹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거리이동상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도르래를 돌려야만 열리는 두꺼운 철문 같습니다. 쉬다가 멈췄다가 가끔은 힘이 딸려 문을 도로 닫기도 하는 저로서는 꾸준히 도르래의 줄을 감아내는 아지트의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문이 닫혔다고 느껴질 때, 새로운 문을 만났을 때, '와서 보라'던 말씀과 '기다려 보라'던 말씀을 자주 곱씹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노란 버스와 초록 천막에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간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함께하며 관계를 쌓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께, 2년 전 제가 받았던 그 초대를 그대로 전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와서 보시겠어요?'

울릉도&독도 여행 감상문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입소 이 O O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청소년 복지 시설인 성남시단기청소년 쉼터에서 단기에 거주중인 쉼터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8/20 ~ 8/23의 기간 동안(2박3일) 울릉도와 독도에 여행을 갔다 오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일차인 8월 20일에는 아침 일찍 출발하여 바로 독도로 향했다. 육지에서 3시간 바다에서 3시간정도 지나 5~6시간 만에 독도에 도착하게 된 우리는 조금 실망했었다. 독도는 사진으로 본 것 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생각 한 것보다 커다란 섬이었지만, 독도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라 독도 경비대와 거주민을 제외하고는 30분 이상 있을 수 없다 해서 원하는 만큼 독도를 둘러볼수가 없었던 것이다.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곳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친구들이랑 사진이라도 많이 남겨서 아쉬움을 달랬다.

독도에서의 30분 이후에 우리는 바로 울릉도에 있는 한 펜션으로 향했다. 저녁식사로 바비큐 파티를 즐긴 뒤 내일에 있을 일을 기대하며 잠에 들었다,

2일차인 8월 21일 아침에는 울릉도 해중 전망대로 향했다. 해중 전망대라 함은 바다 밑으로 탑을 세워 탑의 벽 일부를 강화유리를 사용. 탑 내에서 수중 환경 및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사람들의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중 전망대 근처에는 물고기 사료통이 놓여있는데, 사료를 먹기 위해 물고기들이 모이는 장면은 아쿠아리움을 보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해중 전망대에서 시간을 보낸 후 우리들은 오후 4시쯤, 바다 스노쿨링을 하러갔다.

바다 스노쿨링은 오리발이나 안면안정장치들의 장치를 착용하고 일정 범위내 해안에서 바다 안을 둘러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은 기본적인 안전교육만 받은 다음에 바로 바다 스노쿨링을 시작했다. 카메라가 아닌 직접 내 눈으로 보는 바다는 굉장히 아름다웠다. 불가사리부터 고등어, 소라 등등의 해양생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이 프로그램 이후 극도의 피로가 몰려온건 비밀이지만. 스노쿨링이 끝나고 우리는 둘째 날 마지막 일정인 모노레일을 타러갔다. 모노레일 올라가는 각도가 에버랜드에 있는 티익스프레스 보다 경사져서 솔직히 조금 무서웠지만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간 이후에 보이는 울릉도 전체의 풍경을 볼 때는



피로함도 느끼지 않고 감동했었던 것 같다. 둘째날의 일정까지 마무리한 우리 쉼터일행들은 다시 1일차에 지냈던 팬션으로 돌아가 씻고 저녁도 먹고 쉬면서 그렇게 둘째 날을 마무리했다.

3일차이자 울릉도 여행의 마지막 날인 8월 22일에는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독도박물관이나 독도 전망대 같은 곳을 갔다. 놀만큼 놀고 쉼만큼 쉬었는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말해보라고하면 정확히 말할게 없어 창피해하던 나는 3일차에 방문한 박물관 덕에 울릉도랑 독도에 대해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2박3일의 마지막 코스인 울릉도 케이블카를 타러갔다.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에서 진행한 울릉도/독도 문화 체험활동 2박3일 프로그램은 추억도 추억이거니와 평소 같으면 갈 생각도 안할 독도와 울릉도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주선해주신 쉼터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멋진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친구가 함께 한 울릉도 독도 여행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입소생 이○○

첫날에 강릉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출발했습니다. 배로 1~2시간 이동해서 울릉도에 도착하고 이후에는 독도탐방을 하러갔는데, 독도까지 어디서 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가는데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독도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대략 20분 정도 있었고, 그쪽에서 선생님들과 경치를 보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간 청소년들과도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추억도 만들었고, 경치는 참 죽여줬습니다. 아주 좋지만 좀 더 머무를 수 없어서 아쉬운 20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탐방 다음에는 배타고 울릉도로 돌아와서 밥먹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방 배정을 받고 나서 방이 너무 좋아서 방 안에서 같이 간 청소년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노레일을 타러 출발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후 해중 전망대로 가서 바다와 산의 풍경을 봤었는데, 경치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좋아서 정말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다 스노클링을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스노클링을 재밌게 참여했는데, 저도 하고는 싶었지만 물을 많이 무서워서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노는 사진을 같이 사진으로 찍으면서 놀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신기 하게도 스노클링을 할 때 청소년 1명이랑 선생님이 고등어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스노클링 사장님이 이렇게 손으로 고등어를 잡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매우 놀라셨습니다. 잡은 고등어를 제가 회를 뜨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둘째날 일정이 종료되어 바로 숙소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그 날 밤에 저녁식사를 하며 바비큐파티를 했는데,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고기와 밥을 맛있게 먹으며 둘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독도박물관을 방문하고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독도박물관은 독도와 울릉도 등 근교지의 섬들의 유래와 역사들을 디지털 매체로 정리해놓은 박물관이었습니다. 독도박물관은 여러 가지 역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고, 박물관 관람을 마친 이후에는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 모두 를 볼 수 있는 탈 것이었는데, 볼 때의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탐방을 다녀오면서 비록 교통편이 길고 불편해서 힘들기는 했으나(특히 배편이 힘들었습니다),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는 재미가 있었고 이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서로 나누면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들과 같이 가서 좋았고 청소년들이 서로 더욱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2018년)

1월	박혜순(2만원) / 박치형(1만원) / (주)트라이포드(5만원) 권정희(5만원) / 디투에스(10만원) / 힘내요친구들(5만원)	7월	박혜순(2만원) / 박치형(1만원) / (주)트라이포드(5만원) 방지거(2만원) / 영인기술(120만원) / 디투에스(10만원) 코리안리재보험(상품권2백만원)
2월	박혜순(2만원) / 박치형(1만원) / (주)트라이포드(5만원) 경기도 (30만원) / 디투에스(10만원)	8월	박혜순(2만원) / 박치형(1만원) / 디투에스(10만원) (주)트라이포드(5만원)
3월	박혜순(2만원) / 박치형(1만원) / 디투에스(10만원) (주)트라이포드(5만원) / 김진나헬레나(10만원) 코리안리재보험(상품권2백만원)	9월	박치형(1만원) / 디투에스(10만원) (주)트라이포드(5만원) / 경기도(30만원)
4월	박혜순(2만원) / 박치형(1만원) / (주)트라이포드(5만원) 시와(500만원) / 신영화(30만원) / 디투에스(10만원)	10월	박혜순(2만원) / 박치형(1만원) / 디투에스(10만원) (주)트라이포드(5만원)
5월	박혜순(2만원) / 박치형(1만원) / 디투에스(10만원) (주)트라이포드(5만원) / 방지거(2만원)	11월	박혜순(2만원) / 박치형(1만원) / 디투에스(10만원) (주)트라이포드(5만원)
6월	박혜순(2만원) / 박치형(1만원) / 디투에스(10만원) (주)트라이포드(5만원) / (주)지엠피주얼(60만원) 곽근원(1만원) / 에이투유정보통신(60만원) 이규희(20만원)	12월	박혜순(2만원) / 박치형(1만원) / 디투에스(10만원) (주)트라이포드(5만원) / 분당경륜경정(상품권 1만원)백

♡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2018년)

1월	미소앤에그(계란2판)
2월	성남시청 기업지원팀(롤휴지 270롤) / 중원구청(고기) / 삼영전자공원(쌀10kg5포, 라면 5박스) / 파파존스(피자 7판) 참사랑복지회(휴지1팩, 치약5개, 식용유1개, 주스1개, 스펀4개, 칫솔1팩) / 진인환(스키3개) / 푸드머스(쌀20kg 20포)
3월	피의연대기다운카카오편당(위생속옷60벌, 생리대2박스) / 코리안리재보험(쌀20kg55포, 피자5판, 샐러드1팩, 치즈스틱) / 휘문고(컴퓨터의자 6개, 블루투스스피커2개, 과자8봉)
4월	김미자(천혜향 1박스) / 에듀윌(쌀10kg 100포)
5월	-
6월	-
7월	코리안리재보험(쌀20kg 53포)
8월	이근숙(책 2권)
9월	김현수 모친(아이스크림3통, 3박스) / 김현수고모(사과 3박스) / 성남시청기업지원과(비누32개, 세제3개, 휴지30롤) 위례동주민센터(햄1박스, 롤휴지2세트)
10월	-
11월	중부제일교회(과일 1박스)
12월	GEN.G(티셔츠 25벌, 무선충전기 25개, 야광부채 25개, 과자 및 음료 3박스)

♡ 심터자원봉사자

김영주(사회국사공부방) / 조웅희(수학공부방) / 김현호(과학공부방) / 이주연(영어공부방) / 정해빈(국어공부방) / 김미자(원예프로그램) / 김연순(인문학) / 송미나(보컬프로그램) / 식사봉사(유숙현, 권수미, 천기영, 유명희, 김진숙, 최영숙, 박희숙) / 음식봉사(성남따뜻한세상만들기, 코이노니아) / 성남 도시개발공사(환경미화) / 분당경륜경정(환경미화&현물지원) / 위례동성당(환경미화) / 광주성당 청년회 황정현 외 21명(활동지원) / 서판교성당 임종석 외35명(밥묵차지원) / 이성은·이근숙(의료지원) / 이해선(법률지원) / 조수경·정해옥·채진희·김구슬·곽근원·정용빈·이두희·강민경·손명희·양연수·심민수·류민지·김영신·유민영·최제이·김의성·이희준·김영희·이근휘·한수정(활동지원)

• 업무협약식 및 후원물품 전달식



후원금 전달식
(분당경륜경정)



후원금·물품 전달식
(코리안리재보험)



후원물품전달식(에듀월)



연세와이엘의원(협약식)



성남상공회의소후원자결연식

Dream Up! 프로그램

Dream Up!은 위기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시간과 체험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구체화 해보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아나운서



3D프린터



변호사



포토북 디자이너



기타 리스트



방송인



바이오 산업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펀드매니저



성악가



글누락된 페이지 추가하니

여기 컬러 페이지만

작업하면 될거같아요

자원봉사

성남시남자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체육, 미술 등 예체능 활동의 재능나눔, 공부를 지속하기 위한 학습지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기타 행정보조 및 노력봉사를 해주실 봉사자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일반후원

쉼터를 위해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후원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물품후원

먹거리, 피복, 문구 등 각종 생필품들이 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20-4514-21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농협 301-0121-1372-01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우남이타워프라자 8층

☎ 031-752-9050

☎ 031-758-9050

🏠 www.bestboy.co.kr

✉ jnshimter@hanmail.net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우남이타워프라자 8층

☎ 031-722-6260,6239

☎ 031-756-6239

🏠 www.purumi.net

✉ purumi2006@naver.com

🗨 kakao ID.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

오시는길

🚇 **지하철** 복정역 2번 출구 하차

🚌 **버 스** 위례서일로 마을 입구 정류장 하차
(331, 50-1, 50, 452, 3012)



위례서일로마을입구 정류장에서 300m 거리에 위치